고3 불리하지 않게…대입전형 추가 변경

대교협, 대학 변경 승인 신청 받아 … 12일 전형위원회 열어
코로나19로 교과 외 영역 반영 폐지·자격기준 변경 등 심의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고등학교 3학년을 구제하기 위해 일부 대학이 2021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을 추가로 변경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전국 4년제 대학 198곳의 협의체인 대교협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2일 대입 전형위원회를 열어 일부 대학의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현재 각 대학의 변경 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대학은 입학 연도 3월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확정해야 한다. 이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대교협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대교협은 입학 직전 해의 4월까지 전형위원회를 열어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해왔다.

2021학년도 대입의 경우 각 대학이 작년 5월까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4월까지 변경도 마쳤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대폭 늘어나면서 대부분 대학이 이미 확정한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손질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비교과 항목을 채우기가 어려워지면서 관련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수생과 비교해 고3이 불리해졌다며, 이를 대입 전형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지난달 3일 대입 전형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대 등 20개 대학의 대입 전형 변경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추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대학이 있어 9월 본격적인 2021학년도 대입 수시 접수를 앞두고 이달에 추가로 대입 전형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전형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수능 위주 전형의 교과 외 영역 반영을 폐지하거나 각종 대회 연기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기간·자격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대학의 변경 신청을 더 받아봐야 한다"면서도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전형 등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과 별도로 고3 구제를 위해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쉽게 내야 한다는 요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수능 난이도 조정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지난달 21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이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대입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수능 난이도 조정을 고려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두 달 안에 답변을 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난이도 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가 나온 지난달 초 "졸업생, 재학생의 성적은 예년 수준 내에서 차이가 있었다"며 예년 난이도로 수능을 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여대,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와 산학 협력 협약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최초로 신설된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애완동물보건학과는 최근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회장 김옥진)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날 협약을 체결한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는 동물매개치료의 연구와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동물매개치료학회로 동물매개심리상담사, 동물행동상담사, 펫파트너, 도우미동물평가사, 반려동물관리사 등의 자격관리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술 행사 등을 공동기획·협력하기로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학교 종사자 건강증진 나서
전남도교육청

전남교육청이 학교 현업 업무종사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8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작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현업 업무종사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 작업현장과 작업방법 분석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며, 현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조사 대상 직종은 시설관리와 통학차량 관련, 당직 전담, 미화, 급식 업무 등이고, 현업 종사자의 직종이 다양한 학교, 산업재해 발생 학교,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 학교, 최근 공사 진행 학교 등 110개교를 표본으로 정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포스트 코로나 교육 방향' 워크숍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가 최근 '코로나19 시대, 우리 대학 교육과정의 평가와 설계'라는 주제로 2020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혁종 총장과 학처장 등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행정관 스마트강의실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대학원 및 학부(과)의 2020학년도 1학기 원격 수업 등을 평가하고 2학기 수업 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대 제공〉

조선대, 취업난 극복 학생 지원 '박차'

'취업성공 사관학교' 등 프로그램 진행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방학기간에도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조선대가 최근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취업성공 사관학교 3기 ▲CU골드클럽 ▲진로설계 Work-Book ▲2020 청년 비대면 JOB FAIR ▲K-MOVE스쿨 5기 등이다.

'취업성공 사관학교'는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니즈(needs)를 파악,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한데 묶은 프로그램이다. 국내 30대 대기업 채용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입사지원서 1대1 컨설팅 등 대면방식과 NCS 강의, 면접 컨설팅 등 비대면 방식이 혼합된 강도 높은 취업역량 강화훈련이 이루어진다. 7월 29일까지 3기 프로그램을 마쳤다.

'CU골드클럽'은 10년 넘게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온 조선대의 대표 취업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의 취업목표를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금융 등으로 나누고, 인적성 및 NCS 학습, 그룹스터디 활동 지원, 동문 선배 멘토링, 실전면접 훈련 등 각 분야에 맞는 탄탄한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진로설계 Work-Book은 조선대 대학일자리지원센터가 1학기 코로나19 인해 비대면 수업을 받는 재학생들의 진로탐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체 제작한 학습지로 스스로 희망직업·직무에 대해 탐색하고, 취업준비 수준을 평가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밖에 조선대학교는 외국계 기업 및 해외취업 지망생과 장애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교사 충원 대신 순회교사 늘리기 '꼼수 논란'

교육부, 548명 배정

교육부가 내년 학교에 배치하는 교과 교사를 줄이는 대신 지역 교육청에 배치하는 순회 교과교사를 늘리는 계획을 놓고 논란이 일고있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내년도 교원 정원 1차 가배치 계획에서 고교학점제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548명을 교과 순회교사로 확보해 배정했다.

순회교사는 학교가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활동한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 배치된 순회교사는 학교에서 소수의 학생들만 듣는 교과(소인수 교과)를 맡아 가르치게 된다. 현재는 소인수 교과 담당 교사를 기간제·비정규직이 맡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교사를 배치해 보다 안정된 수업 환경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순회교사 배치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순회교사 배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정원을 늘리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제기한다.

특히 교사 수급난을 겪는 전남을 비롯한 농·산·어촌은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때 도시와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수 있어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몇 개 학교를 다니면 교육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선택과목이 늘어나면 교사 수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게 되니 아랫돌 빼다 윗 돌 괸 격"이라고 분석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금호평생교육관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금호평생교육관이 18일부터 12월18일까지 16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2020년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접수는 5~14일 선착순 방문접수로 진행진다.

'2020년 하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크게 문화예술·인문교양·기초문해 등 세 개 분야로 나뉘고 총 20강좌로 운영된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한문서예 ▲서양화 ▲문인화 등 3강좌,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은 ▲캘리그라피 ▲행복 나눔 시낭송 ▲영어회화 초급 ▲영어회화 중급 ▲풍수지리 기초 ▲풍수지리 심화 ▲중국어회화 ▲스마트폰 완전 정복 ▲매듭규방공예 ▲홈패션 ▲동영상 만들기 ▲수지침 ▲생활역학 ▲컴퓨터 기초 ▲성공과 행복 등 15강좌,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은 ▲한글 ▲실생활 정보교실 등 2강좌로 구성됐다.

김선욱 금호평생교육관 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학습자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